



2019 마지막 부분일식

2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관측되고 있다. 이날 부분일식은 서울 기준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오후 3시 15분 태양 면적의 13.8%가 가려지고 오후 4시 11분 마무리됐다. 왼쪽부터 오후 2시 27분, 오후 2시 59분, 오후 3시 14분, 오후 3시 52분, 오후 4시 11분. /연합뉴스

점점 줄어드는 출생아수...43개월 연속 최소

통계청 1~10월 인구동향...광주 9.3%·전남 3.8% 감소 전국 자연증가율 0%...조만간 인구 감소세 전환 불가피

지나해와 비교한 올 1~10월 출생아 수가 광주는 9.3%, 전남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월별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최하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광주 723명·전남 888명 등 7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709명·전남 918명) 보다 0.9%(16명) 감소했다. 올 1~10월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는 9.3%, 전남은 3.8% 감소했다.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인구 자연증가율(출생아-사망자)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쳐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갱신했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9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역시 10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였다. 10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역 조출생률은 광주 5.9명, 전남 5.6명으로 나타났다. 10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10명(2.0%) 늘어난 2만5520명이었다. 이는 월별 통계 집계기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명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율(출생아-사망자)

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지역 조사망률은 광주 5.8명, 전남 9.1명으로, 전남지역 조사망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10월 지역 사망자 수는 광주 711명, 전남 1437명으로 올해 1월 이후 광주는 8개월 만에, 전남은 7개월 만에 최하를 기록했다. 10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2만331건으로 1년 전보다 1525건(7.0%) 줄었다. 주석 연휴가 9일로 길었던 2017년(1만7348건)을 제외하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다. 이혼 건수는 9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3건(6.5%)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2회 서재필 언론인상에 광주일보 박진현 선임기자

다음달 7일 시상식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선정위원회는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박진현(55·사진) 광주일보 문화선임기자를 제2회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선임기자는 기자 생활 대부분을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중앙감 있는 기획 기사를 다수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 문화 이슈를 다룬 칼럼 '박진현의 문화카페'를 연재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기관들과 문화행정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도서관, 문화가 품다' '국내의 문화 예술교육현장을 가다' 등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특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27곳을 취재한 내용을 담은 '처음 만나

33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기자의 공익성과 국가·사회발전 기여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와 언론윤리 준수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광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박 선임기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600만원이 수여된다. 박 선임기자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및 동대학원 출신으로 1987년 광주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장, 논설위원, 편집부 국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편집국 제작국장 겸 문화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2년~2003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서재필 언론인상은 광주전남 중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서재필 선생의 자주·자강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



은희 여기자상 위원회가 선정하는 '제2회 서재필 언론인상'을 수상한 박진현(55·사진) 광주일보 문화선임기자를 제2회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선임기자는 기자 생활 대부분을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중앙감 있는 기획 기사를 다수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 문화 이슈를 다룬 칼럼 '박진현의 문화카페'를 연재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기관들과 문화행정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도서관, 문화가 품다' '국내의 문화 예술교육현장을 가다' 등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특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27곳을 취재한 내용을 담은 '처음 만나'는 미국 미술관'을 2010년 발간하고 2013년엔 국내외 유명 아트센터의 브랜드 공연 등을 현장 취재한 '도시의 아이 콘, 아트센터'를 출간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호남 지역 최초로 추계 최은희 여기자상 위원회가 선정하는 '제2회 서재필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

“한·일 위안부합의는 진정한 해결 될 수 없다”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의 제기 없을시 2주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전주재 이의영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결정문에 포함했

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부가 합의 당시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군인들 내년부터 꼬막비빔밥·바닷장어 먹어요

AI·빅데이터 '잔반자동측정시스템' 도입...급식량 조정 등 파악

내년에는 꼬막 비빔밥, 바닷장어, 청포도 사인머스켓 등이 장병 식단에 오른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잔반자동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급식량 조정 뿐 아니라 장병의 식단 품목 선호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산업기술 발전과 장병 선호도 변화를 고려해 장병 만족도와 급식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식 기준량 조정, 신규 품목 도입 확대, 급식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2020년도 급식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 식단에 오를 신규 품목은 찹쌀탕수육, 컵 과일, 꼬막, 바닷장어, 간 밥, 소양념 갈비찜, 잡채와 통새우가 들어간 볶음밥 등 30개 품목이다. 특히 시중 인기 메뉴인 꼬막 비빔밥을 비롯해 씨가 없고 고당도의 청포도인 사인머스켓도 오른다. 양을 늘리는 품목은 월 1회 정규 급식용 생삼겹살(매일 68g→78g씩 연 350회),

훈련 후 먹고 싶은 품목 1위로 조사된 전북 삼계탕(연 5~6회), 오리고기(연 16→18회) 등 20여개 품목이다. 그러나 장병들이 좋아하지 않는 고등어(연 28→24회), 명태(연 18→15회), 오징어채(연 28→24회) 등 30여개 품목은 양을 줄인다. 국방부는 "장병 대상 품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호 품목은 기준량과 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감량했다"며 "식사와 시험 급식을 거쳐 반응이 좋은 신규 품목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장병 1인 하루 기본급식비는 올해보다 6%가 인상된 8493원이다. 내년도 장병 총급식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국방부는 다양한 시중 제품 가운데 장병 스스로 좋아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내년에는 시리얼과 쌀국수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정부, 40대 일자리TF 출범...내년 3월까지 맞춤형 대책

정부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년 3월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40대 일자리 TF' 관계부처 첫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3월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타 연령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부진한 40대의 고용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제조업 여건이나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40대 특성,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청년대책에 준하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0대 일자리 TF 산하에 실태조사와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지원,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산업·지역 등 5개반을 운영해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도록 40대의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대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순천시 공고 제2019-2335호

순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일람 공고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일람을 실시합니다.

2019. 12. 27.
순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변 경		구 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8,844	-	38,84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8,844	-	38,844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신설	-	서면 건보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	-	중)38,844	38,844	-	공동주택입입에 따른 체계적 관리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가능 연장 (m)	위 치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총 정				
기정	중로	3	27	12	침산도로	916	대로1-7 서면 선평리 788	중로1-14 서면 선평리 10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27	12-15	침산도로	916(220)	대로1-7 서면 선평리 788	중로1-14 서면 선평리 1032	일반도로		일부구간 복원확대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322	중로2-49 서면 선평리 1088	중로3-27 서면 선평리 917	일반도로	순천고-4 (1994.3.2.)	
변경	소로	1	104	10-13	국지도로	322	중로2-49 서면 선평리 1088	중로3-27 서면 선평리 917	일반도로		일부구간 복원확대
폐지	소로	2	530	8	국지도로	158	대로1-7 서면 선평리 335-1	소로1-104 서면 선평리 799-2	일반도로	순천고-4 (1994.3.2.)	

※ (1)은 시범부지 내 일부구간 확충구간임.

라. 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지구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희 지 번호	위 치		
-	A-1	38,844	①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	34,438	공동주택용지
			②	중로3-27호, 소로1-104호	4,406	도로용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	1-①	용도	허용 용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층수)	최고18층 이하	
배치		주인 커뮤니티 공간 확보, 채광·통풍을 고려한 항 배치		
형태		순천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세부지침을 고려한 배치		
색채		지붕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형태를 권장		
옥외광고물		담당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생활터리 담장 계획		
건축선		단지 내의 동맥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식 및 식재 등 설치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순천시 색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색채 범위 준용		
		공동주택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소재조합 5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음		
		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은 「순천시 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		
		건축물개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지정 ※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건축선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관계도시: 계재생택(순천시 도시과 비차)
3.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2019년 12월 27일 ~ 2020년 1월 9일(14일간)
열람장소: 순천시 도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과 ☎ 061-749-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